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75개 초중고에 직업 조연자 150여 명 배치	런던
문화·관광	3	18~30세 청년층에 저렴한 공연티켓 판매	토스카나
사회·복지	5	여성·인종·동성애 차별, 반유대주의 반대 주간행사	파리
행재정·교육	7	호주 최초로 이공계 전문학교 2021년 개교	뉴사우스웨일즈
	9	‘지방정부 선출직 여성 비율 늘리기’ 프로젝트 시행	빅토리아
도시교통	11	고령 운전자 마크 등 ‘노인 교통사고 방지’ 다각적 사업	도쿄
도시계획·주택	13	‘람블라스 거리 되살리기’ 국제 프로젝트 공모전	바르셀로나

75개 초·중·고에 직업 조연자 150여 명 배치

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이해하고 실제 취업준비 하도록 지원

영국 런던市 / 행정·교육

- 영국 런던市는 2015년부터 시내 75개의 초·중·고등학교에 150여 명의 '직업 조연자'(Enterprise Advisers)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일찍부터 직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중

- 배경
 - '런던 경제 활동 파트너십'(LEAP: London Economic Action Partnership)이 제시한 젊은 런던 시민들의 구직·채용 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요건 7가지 중 다음 2가지에 관계된 정책
 - 모든 런던 젊은이는 16세 이전까지 적어도 100시간의 직업 경험이 있어야 함
 - 모든 중·고등학교는 명확한 직업교육 방침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함

- 주요 내용
 - 런던시는 직업 조연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에 제공
 - 런던시는 기금을 조성하여 직업 조연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(Enterprise Coordinator)를 제공하고, 이 코디네이터 그룹에서 각 학교에 알맞은 직업 조연자를 배치
 - 런던시는 직업 조연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으로 활동 지원
 - 직업 조연자는 각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업무 수행
 - 직업 조연자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의 직업 동기 부여 프로그램, 취업 전략 계획 등의 커리큘럼을 함께 개발하고 지원
 - 또한 다양한 직종의 회사·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

- 직업 조언자의 자격
 - 의무 (Commitments)
 -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최소 1년간 매달 1일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
 - 다른 직업 조언자들과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교류할 것
 - 시청에서 3.5시간의 소개 교육(Introduction session)을 받고, 활동 기간에 1회 이상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것
 -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의회 담당자들과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
 - 역할(Role)
 - 학교 운영자 및 다른 직업 조언자들과 협력하여 직업교육 현황, 성공 사례,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
 -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전략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협조
 - 직업 조언자의 사회적·비즈니스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업교육 진행
 - 기술과 경험(Skill and Experience)
 - 직업 조언자는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관계자 및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 경험이 있거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할 것
 - 제안서나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 전략을 세워 본 경험이 있을 것
 - 현재 직업 시장(Labour market)을 잘 이해해야 하며, 취업을 위한 학문적·실무적 방법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
 - 해당 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volunteering/reducing-barriers-social-mobility/enterprise-advisers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city-hall-blog/enterprise-adviser-school-visit-cabinet-office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city-hall-blog/enterprise-adviser-toolkit-launch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문화·관광

18~30세 청년층에 저렴한 공연티켓 판매

이탈리아 토스카나주 / 문화·관광

-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18~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전통 극장 공연을 5유로(6천 원)에 관람할 수 있는 ‘Under 30’ 프로젝트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
- 배경
 - 토스카나주는 예술의 지방답게 많은 전통 극장에서 다양한 공연(뮤지컬·연극·오페라·음악회 등)이 열리고 있지만,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쉽게 즐기지 못함
 - 주정부는 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
 - 주정부와 사회적기업 ‘유니콥 피렌체’(Unicoop Firenze)와 ‘토스카나 공연 협회’(Fondazione Toscana Spettacolo onlus)가 협동하여 지난 2월 15일 ‘Under 30’ 프로젝트를 시작
- 주요 내용
 - 국가·인종·배경에 관계없이 18~30세 청년들은 모든 해당 공연을 5유로에 관람 가능
 - 토스카나주의 여러 도시 내 총 17개 전통 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이 해당
 - 참여 도시: 피렌체(Firenze), 시에나(Siena), 피사(Pisa), 아레초(Arezzo), 볼테라(Volterra) 등
 - 청년들의 기호에 맞는 웹 플랫폼 운영
 -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양한 공연 정보를 업데이트
 - 홈페이지(www.under30.it)에서 예약 후 공연 당일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5유로를 내면 관람 가능

- 기대 성과

- 작년 한 해 약 15만 장의 티켓을 판매한 토스카나 극장 박스오피스는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티켓을 팔고 이를 통한 경제적·문화적 풍요를 기대
- 청년들에게 차별 없는 문화 예술 경험 기회를 주는 데 의의

<http://www.toscana-notizie.it/-/teatro-biglietto-scontato-per-i-giovani-in-sedici-comuni-ore-13-conferenza-stampa>

<http://www.toscana-notizie.it/-/a-teatro-con-soli-cinque-euro-biglietto-scontato-per-i-giovani-in-sedici-comuni-toscani>

<http://www.coopfirenze.it/under30/il-progetto>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사회·복지

여성·인종·동성애 차별, 반유대주의 반대 주간행사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2017년 3월 18~26일을 제2회 차별 반대 주간으로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

- 배경
 -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파리는 한국보다 인종 차별이 일상적이고 광범위
 - 파리에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많으며, 반유대주의가 일상화
 - 파리는 매년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고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, 여전히 혐오표현과 불관용이 일상화되어 있음

- 차별 반대를 위한 파리시의 노력
 -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1의 수단을 교육으로 판단
 - 자유·평등·박애를 중시하는 프랑스 공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
 - 교육부, 교육기관, 스포츠·문화 단체들은 공동으로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 중이며, 2012년에는 부처 간 협업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
 - 인종·성별·성적 취향·종교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 감시와 처벌 강화
 - ‘차별 현황 파악 조직’(RePaRe: Réseau de repérage des discriminations) 신설
 - 목표는 ‘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도록 만들기’
 - 현재 차별 현황과 정도를 파악하고, 차별 관련 사태가 일어나면 구체적 정황을 파악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
 -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고 평등 문화를 촉진

- 중학생 대상 교육 프로젝트 진행
 - 목표는 ‘차별을 인식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청소년 양성’
 - 차별 인식, 고정관념 깨우치기, 관련 법 숙지, 학생 간의 토론 등
 - 관련 사회단체들과 협력
 - 관련 단체들은 연락처를 웹상에 공개하고 신고된 문제에 공동으로 개입
- 차별 반대 주간행사 개요
- 행사 목표는 시민들이 파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
 - 파리가 진행해 온 차별 반대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중간평가와 발전 방향을 확인하는 의미
- 주요 내용
- 관련 사회단체를 포함하여 교육단체, 교육기관, 기업, 노동조합 등이 참여
 - 차별 철폐를 주제로 발표회, 토론회, 엑스포, 연극, 콘서트, 영화제, 전시회 등 개최
 - 성차별, 외국인 혐오, 반유대주의에 관한 국내외 젊은 연구자의 연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
 - “우리는 모두 평등한가?”라는 주제로 11~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비디오, 사진, 포스터 등의 시각예술작품을 만들고 콩쿠르를 개최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paris-s-engage-contre-les-discriminations-4305>

<http://www.paris.fr/discriminations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행재정·교육

호주 최초로 이공계 전문학교 2021년 개교

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/ 행재정·교육

-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사상 최초로 이공계 과목(STEM: 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 and mathematics)만을 교육하도록 설계된 학교를 2021년 설립하기로 결정
- 배경
 - STEM 능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요인으로 지목
 - 앞으로 5년간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직업 영역은 보건(20%)과 과학기술(14%)로 조사
 -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1.5배 빠르게 성장
 - STEM 능력이 있는 노동력이 1%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이 570억 호주달러(57조 4천억 원) 증가할 것으로 추정
 - 호주 학생들의 STEM 능력은 이러한 수요에 부족한 실정
 - 3년마다 시행하는 STEM 능력평가에서 2015년 초등학교 6학년생의 55.1%만이 정부 기준(proficiency standard)을 충족
 - 호주는 2016년 '수학·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'(TIMSS: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)에서 49개국 중 28위를 기록
 - STEM 과목 기피와 전문 교사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
 - 2012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수험생 수는 늘었으나 물리·화학·생물 등의 STEM 과목 응시자는 감소
 - 전공 교사가 부족하여 명목적(notional) 전공자(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)가 STEM 과목을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
- 개요
 - 학생들의 수학·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지 않아
 -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과학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85%, 과학자를 흥미로운 직업으로 여기고 있는 학생은 69%에 달해

-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‘전국 STEM 학교 교육 10개년 전략’에 따라 학교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
 - 대학입학 시험의 개편으로 수학·과학의 비중을 높일 계획 발표
 - 교과과정 대폭 개편으로 학생들의 STEM 과목 참여 확대 및 기회 제공
 - 2018년도부터 11학년(고2)은 개편된 수업계획서로 교육
- 교과과정 개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TEM 전문학교를 설립

- 주요 내용

- 유치원생부터 12학년(고3)까지 모든 학년을 수용(학생 수 2천여 명 예상)
- 현재 세부계획을 구상 중이며 2021년 개교 계획
- 시드니 서부에 들어설 ‘시드니 과학 공원’(Sydney Science Park) 내부에 설립
 - 과학 공원에 입주할 다양한 STEM 기업의 견학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원
- 시드니 과학 공원은 세계적인 IT·과학 센터로 만들 예정
 - 시드니 서부 루든햄(Luddenham) 지역 2.8km²의 부지에 건립 중
 - 연구·교육·개발 센터로 조성하여 1만 2천 개의 지식 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
 - 국제적인 IT·과학 센터로 만들기 위해 2024년 준공 예정인 시드니 제2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건립
 - 과학 공원은 늦어도 2018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

<https://www.nsw.gov.au/your-government/the-premier/media-releases-from-the-premier/first-STEM%20-school-coming-to-western-sydney/>

<http://www.educationcouncil.edu.au/site/DefaultSite/filesystem/documents/National%20STEM%20School%20Education%20Strategy.pdf>

http://www.chiefscientist.gov.au/wp-content/uploads/OCS-Datasheet-secondary-schools_REFERENCES.pdf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‘지방정부 선출직 여성 비율 늘리기’ 프로젝트 시행

호주 빅토리아주 / 행재정·교육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구단위(Council) 지방정부에서 선출직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‘가자, 여성들의 지방정부’(GoWomenLG)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지방선거에 여성의 입후보를 장려하고 선거 운동을 지원

- 배경
 - 지방정부에 여성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
 -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은 주민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행정 욕구 해결인데, 여성이 남성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음
 - 주민들의 남녀 비율은 반반이지만 여성 지도자의 부족으로 여성의 욕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제기
 - 주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사상 최초로 ‘양성평등 전략’(Gender Equity Strategy)을 시행
 - 2025년까지 지방정부 선출직 여성의 비율을 50%로 만들 목표

- ‘가자, 여성들의 지방정부’ 프로젝트
 - 지방선거에 여성의 입후보를 장려하고 선거 운동을 지원
 - 여성을 위한 지방선거 참여 매뉴얼 개발: 지방정부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선거 운동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지원
 - 멘토링 프로그램: 여성 후보가 효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, 리더십 훈련, 소셜 미디어 활용법과 대중 연설 기술 교육 등을 지원
 - 주로 구의원(councilor)을 목표로 하지만, 구청장(mayor)도 포함
 - 지방정부에 진출한 여성이 장기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 - ‘호주 지방정부 여성 연합회’(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’s Association)와 협력하여 선출된 여성의 지원 프로그램 시행
 - 전·현직 의원이나 구청장이 멘토가 되어 초기 적응을 돕고 자문을 제공

- 2016년 지방선거의 결과
 - 2012년 대비 선출직 여성의 비중이 34% 증가
 - 주정부 산하 79개 구청장 중 40%가 여성
 - 여성 의원이 40%가 넘는 구가 전체의 42%, 과반을 차지한 구는 19%
- 향후 계획
 - 주정부는 아직 선출직 여성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
 - 구의회에 여성 의원이 전혀 없는 구가 전체의 18%
 - 구의회에 여성 의원이 1명뿐인 구는 전체의 12%
 - 당선된 여성도 주로 백인계이며 다문화 배경의 여성 지도자는 부족
 - 주정부는 차기 202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부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실행 계획을 수립
 - 1)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강화로 여성의 욕구 반영 향상
 - 2) 여성 입후보자와 당선자에게 일대일 자문 및 지원
 - 3)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증가
 - 4) 주정부가 여성 정치인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원하는 온·오프라인 중앙 허브(central hub) 역할 유지
 - 5) 여성 의원·구청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개최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new-program-to-boost-womens-leadership-in-local-government/>

<http://gowomenlg.org.au/wp-content/uploads/VLGA-2016-Womens-Project-Poster-1.pdf>

http://gowomenlg.org.au/wp-content/uploads/A-Gender-Agenda-5thEdn_web_s.pdf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도시교통

고령 운전자 마크 등 ‘노인 교통사고 방지’ 다각적 사업

일본 도쿄都 / 도시교통

- 일본 도쿄都는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‘고령 운전자 마크’ 부착, 운전 시 인지장애 자가 체크,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
- 배경
 -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
 - 운전면허 보유자(약 8천만 명) 중 약 20%가 고령 운전자
 -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약 50%가 65세 이상 노인
 - 2011~2013년 사이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의 약 70%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
- 주요 내용
 -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‘고령 운전자 마크’ 부착을 강조



그림. 일본의 고령 운전자 마크

- 운전 시 인지장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발표
 -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또는 인지장애는 초기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,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여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
 - 자동차 기능 조작의 어려움, 내비게이션 조작의 어려움, 엑셀 및 브레이크 실수, 안전거리 유지의 어려움, 주차의 어려움, 운전 중 동승자와의 대

화 어려움, 방향 지시등 실수, 운전 후 피로도 증가 등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

- 이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지장애 관련 의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

- 자치구별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혜택을 제공
 - 도쿄도 아키루노시(あきる野市)는 65세 이상의 운전 면허증 반납자에게 운전면허 유효기간까지 무료 버스 승차표를 제공
 - 도쿄도 스기나미구(杉並区)는 75세 이상의 운전 면허증 반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제공

- 일반 기업들도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
 - 물류·이사 회사, 호텔, 쇼핑몰, 인근 온천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
 - 전동 자전거, 전동 휠체어, 안경,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 할인
 - 신용금고 등에서 저축 금리 인상

<http://www.city.akiruno.tokyo.jp/0000004315.html>

<http://www.city.suginami.tokyo.jp/guide/koureisha/enjo/1004637.html>

<http://www.metro.tokyo.jp/tosei/hodohappyo/press/2017/03/16/12.html>

<http://www.e-nexco.co.jp/company/overview/outline.html>

<http://www.keishicho.metro.tokyo.jp/kotsu/jikoboshi/koreisha/shomeisho/support.html>

<http://www.pref.gunma.jp/06/h2100020.html>

이용원 통신원, udesigner201@gmail.com

도시계획·주택

‘람블라스 거리 되살리기’ 국제 프로젝트 공모전

스페인 바르셀로나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세계적 관광명소인 ‘람블라스 거리’(Las Ramblas)가 늘어난 관광 수요 때문에 혼잡해지고 주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고 국제 공모전을 개최

- 배경
 - 람블라스 거리는 카탈루냐주의 주도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리
 -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혼잡도가 증가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민 불만도 증가
 - “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문화유산인 람블라스 거리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음” - 갈라 핀(Gala Pin, 바르셀로나 시의원)
 - 이에 따라 시의회는 람블라스 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

- 주요 내용
 - 참여 프로젝트는 아래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것
 - 람블라스 거리의 역사적 전통과 현존하는 유산
 - 강력한 관광객 유인책
 - 주변 이웃과의 관계,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
 -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, 카탈루냐와 콜롬(Colom) 지역의 광장들과 연계

 - 다음 4가지 사업 중 둘 이상을 포함한 실행 계획(Action Strategies)을 제출
 - 대규모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의 운영 계획
 -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일시적 활동 방안
 - 문화 시설 관리 계획
 - 람블라스 거리의 주변환경과 공공장소의 도시화 계획 초안

- 2019년 초 공사 시작을 목표로 2018년 여름에 우승팀을 결정하고 가을에 집행부를 조직할 예정
-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시민들도 참여
 - 프로젝트를 바르셀로나시 전체의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
 - 이 프로젝트는 도시계획상의 큰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, 변화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과 서로 다른 문화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것
- “지극히 바르셀로나적인 전통을 회복하여 이웃과 관광객들이 람블라스 거리로 돌아오기를 바람” - 자넷 산스(Janet Sanz, 바르셀로나시 도시환경교통부장)



그림. 바르셀로나의 상징, 람블라스 거리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ecologiaurbana/es/noticia/concurso-internacional-para-recuperar-la-rambla-para-el-vecindario>

<http://www.lavanguardia.com/local/barcelona/20170301/42419779281/barcelona-concurso-internacional-transformar-la-rambla.html>

진광선 통신원, sunnyice@hanmail.net